

일 주 문



불국사 신라불교 영산대재
경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10월 8일 불국사에서 신라불교 영산대재를 개최했다.



동화사 일요특별초청법회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10월 16일 경내 대웅전에서 김홍신 소설가 초청 특별 일요법회를 개최한다. (053)985-4405



월정사성보박물관 2011초대전
월정사성보박물관 관장 원행 스님은 10월 13-30일 월정사성보박물관에서 '붓다 미소'를 주제로 오재현 작가 2011초대전을 개최한다. (033)332-6915



제13회 보살계 수계산림 대법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용 스님은 10월 13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전개대화상 녹원 스님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법을 개최한다. (054)436-6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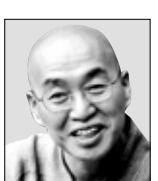
고운사 라디오편역
의성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10월 16일 안동MBC라디오와 함께 '고운사 천년 숲길을 걷다' 라디오편역 행사를 진행한다. (054)834-6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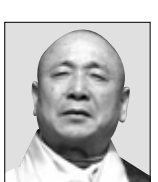
2011 가을 한마당 축제
조계종 국제선센터 주지 현조 스님은 10월 29일 서울 양천공원에서 양천지역 14개 단체와 전국 각지의 농업인들이 참석하는 가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동련 제7회 언어예술제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동국대학교 등과 함께 10월 23일 동국대 백상관에서 '제7회 동련언어예술제'를 개최한다



법륜 스님 100회 즉문즉설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진주정 소년수련원에서 11월 4일 전국100회 연속강연 기념 즉문즉설을 진행한다.



태고종 현안수습위 정무특보
순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10월 4일 태고종 현안 수습대책위원회 정무특보직을 위촉받고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문화체육정책자문위원 위촉
박상진 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는 10월 7일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불교계 수익사업 성공사례 나온다

조계종 재무부장 도문 스님



“중단 수익사업의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업의 확보보다는 생수와 상조에 주력해 모든 종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조계종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생수가 10월 1일부터 전국 2400개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재무부장 도문 스님(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만큼 생수 판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단 수익사업의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업의 확보보다는 생수와 상조에 주력해 모든 종도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조계종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생수가 10월 1일부터 전국 2400개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재무부장 도문 스님(사진)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만큼 생수 판매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 관심은 오로지 복지와 포교

이웃과 함께 나눔행사 개최한 미타사 보명 스님



“미타사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보문동 미타사 주지 보명 스님(사진)이 10월 4일 주지 취임식을 대신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만발공양’을 개최했다. 보명 스님은 이날 직접 보문동 지역의 목거머리선생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을 찾아다니며 쌀과 떡음료 등을 전달했다.

보명 스님은 “주지 취임을 어떻게 뜻 깊게 보낼까 생각하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이번 계기를 통해 미타사가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20년 전부터 불교 포교와 복지에 관심을 갖고 남모르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많은 기부를 실천해 왔다. 이번 행사에서도 스님은 자비로 모든 행사를 진행했다.

보명 스님은 “미타사가 전통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문종 보문사와 인접해 있어 미타사의 존재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현재 미타사에 오시는 신도분들이 기복신앙에 심취해 있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 불자들에게 올바른 부처님의 불법을 전해 대중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보명 스님은 한국불교연화꽃꽃이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꽃 예술전’을 통해 많은 문화 활동도 지속해 왔다.
스님은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되는 전통사찰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soej84@naver.com

활용된다. 분담금에만 상당부분 의존하는 재정 구조로는 원활한 승려 노후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문 스님은 불자들이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감로수를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구나 사찰이 아닌 일반 유통점에 입점한 만큼 소비자들이 자주 찾아야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스님은 “중단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불자들이 중단 생수를 구입해 주기 바란다. 좋은 물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자비의 마음과 환희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재무부와 불교사회연구소는 9월 12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중단 재정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중단 수익사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문 스님은 중단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포교’

와 ‘재정확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쪽에 치중할 경우 문제가 생기며 포교와 재정확충의 균형이 맞아야 수익사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수익사업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당분간은 새로운 상품 개발 없이 현재의 생수와 상조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역량의 분산을 초래해 성공사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스님은 중단 수익사업의 성공 사례가 나와야 앞으로 종도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런 신뢰가 수익사업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생수와 상조사업에 주력해 중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여계가 무겁지만 최선을 다해서 승려노후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기범 기자

불교식 상조로 승려복지 구현할 터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 창립한 포천 불무사 현오 스님



“불교식 비영리 상조를 통해 노인불자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고령의 스님들을 비롯해 불자 노인들의 노후복지를 담당하는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9월 30일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중앙회를 창립한 초대회장 현오 스님(포천 불무사 주지·사진)은 “불교식 상조를 비롯해 노후 관련 사업을 진행해 수익으로 노인복지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는 크게 복지사업과 수익사업을 진행한다. 복지사업으로 승보공양단(부의탁 스님 돕기 봉사단) 활동, 불자 노인 복지기금 조성, 불자노인 상담소 설치 운영, 불자노인요양원 시범운영, 불자노인의집 운영이 전 개된다. 또 수익사업으로 복지용구 및 생활용품 판매, 장례서비스 및 장의용품 판매, 납골당 및 수목장, 자연장, 안치단을 판매한다.

현오 스님은 상조서비스에 대해 “현재 일반 상조의 경우 서비스 부실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특히 회원불자들이 당연히 불교 장례의식을 치러줄 것

로 기대하나 업계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불교노인불자연합회는 상조서비스에 시다립(장례전 의식)에 스님 3명, 불교합창단 3명 이상, 자원봉사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조단을 운영하며 경전이 새겨진 수의 사용 등 불교식 장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오 스님은 “종교계 상조의 경우 이웃종교계 상조업체가 90%에 이르는 상황으로 불교계가 노년층 불자들을 전혀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진흥원 민병천 이사장 원적

4일 숙환으로 별세... 7일 장례 엄수



대한불교진흥원 민병천 이사장이 10월 4일 오전 1시 숙환으로 입적했다. 향년 79세.

고인의 법명은 성암(槿庵). 1932년 경기도 김포에서 출생해 서울대를 졸업하고 동국대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前 동국대·서경대 총장 등을 지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불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다녀갔다. 고인은 7일 발인해 경기 여주 남한강공원묘원에 안장됐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선사(禪師)적 삶 영원할 것

조계종, 스티브 잡스 사망에 애도문



조계종 대변인 정만 스님(기획실장)은 10월 7일 “스티브 잡스의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생태적 세계관 등 그의 선사적 삶은 우리 안에 소중한 울림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선불교의 ‘직관’과 ‘단순함’을 모토로 IT 산업의 새 지평을 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계종은 “스티브 잡스가 ‘시공을 초월한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소통의 신문을 인류에게 선물했다”고 호평했다.

조동섭 기자

부산영산재 작법무 초연

부산시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보존회 작법무 연수원은 10월 3일 부산시 사상구청 대강당에서 제1회 시연회 및 호교영령 위령(지진) 봉행제를 개최했다.

이날 부산영산재 작법무 보유자인 경호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산 영산재 작법무의 시연을 통해 불교전통 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포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영천 은혜사 개산대재 봉행

영천 은혜사(주지 돈관)는 10월 2일 1202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개산대재는 조사전나 성식 및, 개산법요식, 보살계수계식, 만등불사 점등 식식으로 봉행됐다.

이날 개산대재에서 2000여 불자들이 보살계를 수계했으며 수계법사로 설정 스님(덕송총림 수덕사 방장), 해인 스님(동국 일타 문도 대표), 혜종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이 나섰다. 손순철 대구지사장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동종

미 륱 암

신도일동

현대불교신문사 경남남부지사 지사장 청운 합장

■ 신문구독, 기사제보, 광고 접수 ■

신문 구독 불자들에게 달마도를 증정 합니다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70-8838-3776 / FAX 055)867-2880

17th 현대불교신문 창간을 축하합니다

태아영가참회도량

대한불교 약 천 사

주지 자운

신도일동

제9회 약천사 -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입재 : 2011년 10월 16일(일) 오전 10시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전화 02)3391-8523 핸드폰 011-9002-8523